영어어문교육 *제32권* 3호 2026년 가을
https://doi.org/10.35828/etak.2026.32.3.159

영어 행동 제약 및 조정 표현의 구문 선택 기제: 코퍼스 구어 자료의 담화 조건을 중심으로*

이지혜**
(건국대학교)
정혜녕***
(건국대학교)
전문기****
(건국대학교)

Lee, Jihye, Chung, Hyenyeong, & Jeon, Moongee. (2026). Constructional selection in English expressions of behavioral restriction and regulation: A corpus-based analysis of discourse conditions in spoken English.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32*(3), 159-177.

This study examines how four English constructions associated with behavioral restriction and regulation—*Don't + V*, *No + NP*, *NP + please*, and *Would/Could you*—are distributed in naturally occurring spoken discourse and how their selection is related to discourse environment, pragmatic function, and speaker–hearer relations. Drawing on spoken data from the COCA, corpus-wide frequency data and 50 randomly sampled tokens per construction were analyzed quantitatively and contextually. Statistical testing showed that the four constructions differ in their frequency distributions, indicating that speakers do not treat them as freely interchangeable alternatives. Further analysis showed that each construction exhibits distinct distributional patterns. *Don't + V* occurs primarily in everyday interaction and behavioral control contexts, particularly with direct prohibitive functions and in equal-status relations. *No + NP* is more closely associated with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contexts, where it expresses rules or behavioral constraints. *NP + please* and *Would/Could you* occur mainly in interactional contexts involving requests, especially in lower-to-higher status relations(hierarchy), although they differ much in directnes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nstructional selection in behavioral restriction and regulation is systematically associated with discourse conditions,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C2A02095124).
** 제1저자 *** 공동저자 **** 교신저자

pragmatic functions, and participant relations. These patterns apparently point to functional specialization across the four constructions in spoken discourse.

[Behavioral restriction and regulation constructions/constructional choice/discourse distribution/pragmatic function/speaker-hearer hierarchy, 행동 제약 및 조정 구문/구문 선택/담화 분포/화용 기능/화자-청자 관계]

Ⅰ. 서론

영어에서 청자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조정하는 표현은 일상 대화, 공공 안내, 서비스 상호작용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하지 말라’라는 의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지가 함께 작용하며 선택된다. 행동 제약 및 조정은 하나의 정해진 문형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상황에 따라 여러 구문이 서로 다르게 사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문형 자체보다 각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행동 제약 및 조정 표현은 화자가 청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여기에는 특정 행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표현 이외에도 요청을 통해 청자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조정하는 표현도 포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Don’t + V’와 ‘No + NP’는 주로 직접적인 금지나 제한을 나타내지만 ‘NP + please’와 ‘Would/Could you’는 요청을 통해 청자의 행동을 조정한다. 즉, 네 구문은 형식과 직접성의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청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조정한다는 공통된 기능 영역에서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이러한 표현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함께 다루기보다는 개별 표현의 공손성이나 화용적 기능을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왔다. 예를 들어, 명령문이나 요청 표현이 상대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혹은 특정 표현이 얼마나 직접적인지, 공손한지를 분석하는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Culpeper, 2011). 이러한 연구는 각 표현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에는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진 여러 구문이 실제 사용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특정 담화 상황이나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No + NP’나 ‘NP + please’와 같이 실제 구어 자료에서는 자주 나타나지만 문법 설명에서는 중심적으로 다루지 않는 표현들에 대한 통합적 분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행동 제약 및 조정의 표현을 고정된 문법적 표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되는 전략적 구문의 집합체라고 본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 표현의 단순한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능으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사용기반 문법은 언어 구조가 정해진 규칙보다 실제 사용 경험의 축적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Bybee, 2010). 또한 구성 문법에서는 형식과 의미가 결합된 여러 구문들이 서로 가까운 의미 영역 안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들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Goldberg, 2006).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제약 및 조정 표현의 분포는 단순한 빈도 차이가 아니라 특정 구문이 특정 상황과 반복적으로 함께 사용된 결과물이라고 이해 가능하다. 따라서 구문 선택은 단순한 문법 규칙의 적용을 넘어 담화 환경과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제약 및 조정 표현의 사용을 담화 환경(discourse environment, D), 화용적 기능(pragmatic function, F), 그리고 화자-청자의 위계(hierarchy, H)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살펴본다. 담화 환경은 일상 대화, 행동 통제, 서비스 상호작용, 공공 규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화용적 기능은 해당 발화가 직접적 금지, 일반 요청, 공손 요청, 제도적 규제 가운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화자-청자 위계는 발화가 상위→하위, 동등 관계, 하위→상위 또는 제도적 권위라는 기준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기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대상이 되는 표현이 실제 구어 담화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선택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약 및 조정의 표현은 좁은 의미의 금지(prohibition)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그 범위는 특정 행동을 요청하거나 유도함으로써 청자의 행동을 조정하는 표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행동 조정(behavioral regulation) 범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Don’t + V’와 ‘No + NP’가 직접적인 금지 및 제한을 나타내는 반면 ‘NP + please’와 ‘Would/Could you’는 요청을 통해 청자의 행동을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 기능 영역에 참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네 구문이 서로 다른 분포를 보인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하는 데 있지 않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동일한 행동 조정의 기능 영역에 속하는 표현들이 실제 담화에서 어떠한 조건과 반복적으로 결합하며 서로 다른 선택 경향을 형성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담화 환경, 화용적 기능, 화자-청자 관계를 동일한 분석 자료에 적용함으로써 각 조건이 구문 선택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비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의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Don’t + V, No + NP, NP + please, Would/Could you’의 네 가지 구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구문에서 50개의 용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총 200개의 발화 자료를 구축하고 각 용례를 위에 언급한 D, F, H 기준에 따라 코딩하였다. 이러한 분석 설계는 개별 표현의 의미나 형식만으로 비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사용에서 어떤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선택되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분석 범위를 구어 담화로 제한함으로써 비

교 기준을 통일하고 실제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표현 선택의 경향을 보다 분명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1. L1 화자는 제약 및 조정 의미를 표현할 때 주요 구문(Don't + V, No + NP, NP + please, Would/Could you)을 어떠한 분포로 사용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구문 간 사용 빈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2. 담화 환경(D), 화용적 기능(F), 화자-청자 위계(H)에 따라 네 구문은 각각 어떠한 분포 차이를 보이는가? 이러한 분포는 L1 화자의 구문 선택 경향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사용기반 문법과 구문적 고착

사용기반 문법(Usage-based grammar)은 언어 지식을 독립적인 규칙 체계로 여기지 않고 실제 언어 사용 경험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패턴으로 이해한다. 이 관점에서 문법 구조는 추상적 규칙이 먼저 존재한 후 그 규칙이 문장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화자가 실제 상호작용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사용하는 표현들이 점차 익숙한 형태로 자리잡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구조와 기능을 갖춘 언어 지식이 형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문법은 고정된 규칙 체계가 아니라 사용 경험이 축적되며 점차 안정된 형태를 갖게 되는 사용 기반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중요한 개념이 '고착(entrenchment)'이다. 고착은 특정 표현이나 구조가 반복되며 화자의 언어 지식 속에서 익숙해지고 안정된 형태로서 자리잡는 과정이다.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표현일수록 더 쉽게 떠오르고 자연스럽게 처리되며 특정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당 표현이 선택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 점에서 사용 빈도는 단순한 수량 정보가 아니라 특정 표현이 얼마나 익숙하고 쉽게 활성화되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특정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표현은 해당 맥락과 강하게 연관된다. 이는 언어 사용자가 반복된 입력을 통해 형식과 기능의 결합을 학습하게 되고, 그 경험이 실제 언어 처리와 선택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용기반 문법의 핵심 주장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용기반 문법의 관점은 Barlow와 Kemmer(2000), Bybee(2010), Diessel(2019), Ellis(2002, 2012), Langacker(2000) 등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들 연구는 언어 구조를 규칙 적용의 결과로 여기기 보다 반복된 사용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일수록 더 안정적으로 저장되고 실제 사용에서 더 쉽게 선택된다는 것을 공통적으

로 시사한다. 다시 말해, 언어 사용자는 반복되는 언어 경험 속에서 특정 형식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는지를 익히게 되며 이러한 경험이 축적될수록 특정 표현은 특정 맥락에서 더 자연스럽고 익숙한 표현의 선택으로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구문 분포는 단순한 수량적 빈도의 차이가 아니라 원어민 화자들이 실제 사용 속에서 축적해온 경험적 패턴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용기반 문법은 구성 문법(construction grammar)의 틀 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성 문법은 언어 지식의 기본 단위를 형식(form)과 의미(meaning)가 결합된 구문으로 본다(Goldberg, 2006). 이 관점에서는 단어뿐 아니라 구, 문장 구조, 그리고 자주 함께 사용되는 표현 방식까지도 하나의 구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구문이 단순히 형식과 의미만 결합한 구조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특정 기능으로 사용되는 방식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슷한 의미를 표현하는 여러 구문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사용에서는 모든 구문이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어떤 구문은 특정 담화 상황에서 더 자주 선택되고 또 다른 어떤 구문은 특정 사회적 관계나 상호작용 유형과 더 강하게 연결될 수 있다. 이처럼 구문은 실제 사용 속에서 각자 다른 자리와 기능을 갖게 되며 바로 이 부분이 구문 선택의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다루는 제약 및 조정의 표현을 단순히 동의적(same meaning) 문형의 집합체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Don’t + V, No + NP, NP + please, Would/Could you’는 모두 제약과 조정 또는 그와 관련한 행동 요구의 의도로 표현 가능하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선택된다. 이것은 각 표현이 특정 담화 환경, 특정 화용 기능, 그리고 특정 화자-청자의 관계가 반복적으로 함께 사용되면서 점차 그 맥락에 익숙한 구문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Croft(2001), Hoffmann(2022), Traugott와 Trousdale(2013)은 구문이 실제 사용 속에서 각기 다른 기능과 환경을 갖게 되며 반복 사용을 통해 점차 새로운 쓰임과 안정된 사용 범위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제약 및 조정 표현의 분포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어떤 표현이 더 자주 쓰이는지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실제 원어민 화자가 상호작용에서 어떤 표현을 어떤 조건에서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익숙한 사용 패턴으로 자리잡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담화–화용적 역동성과 구문적 특화

제약이나 조정을 나타내는 발화는 단순히 문장 구조의 문제가 아닌 상대의 행동을 조정하거나 제한하려는 사회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화행 이론에 따르면 언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고 실제 상호작용 속에서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다(Austin, 1962; Searle, 1969). 이러한 관점에서 금지, 요청, 경

고, 통제와 관련된 모든 표현은 모두 청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발화로 볼 수 있다. 즉, 행동 제약 및 조정의 표현은 청자의 행동 요구를 실현하는 화용적 수단인 것이다.

이와 같은 발화는 본질적으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특히 상대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표현은 상대에게 감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화자는 발화 내용을 구성할 때 상대와의 관계성을 고려하게 된다. Brown과 Levinson(1987)은 이러한 발화를 상대의 체면(face)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보았고, Culpeper(2011), Goffman(1967), Leech(2014) , Levinson(1983) 역시 언어 표현의 선택이 단순한 의미 전달이 아니라 권력 관계, 사회적 거리, 친밀도, 역할 관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화자는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더 완곡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화자는 동일한 행동 요구를 표현하더라도 상대와의 권력 관계, 사회적 거리 및 역할 관계에 따라 직접성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특히 위계 관계에서는 발화의 방향이 중요한데, 상위 화자가 하위 청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와 하위 화자가 상위 청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서로 다른 표현 전략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위계의 존재 자체보다는 화자와 청자의 상대적 지위와 발화 방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약 및 조정 표현의 차이는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 표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만으로 구문 선택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가, 즉 담화 환경 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같은 제약이나 조정의 의미여도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공공 안내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Biber와 Conrad(2019)는 코퍼스 연구를 통해 언어 형식의 분포가 장르와 사용 환경에 따라 체계적으로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Aijmer(2013)와 Schiffrin(1994)역시 특정 표현이 특정 담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한다. 이는 어떤 표현이 단순히 의미 때문에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그 상황에 익숙한 표현으로 자리잡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문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와 해당 발화의 담화적 환경도 함께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면, 제약 및 조정의 표현은 하나의 요인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화자는 단순히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외에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능으로 누구에게 말하는가를 동시에 고려하여 표현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 영역을 공유하는 여러 구문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담화 환경, 발화의 기능, 그리고 화자-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표현 선택이 달라진다. 사용기반 구성문법에서는 구문에 대한 언어 지식이 실제 사용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조직된다고 본다(Hoffmann, 2022).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구문이 특정 담화 환경과 반복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분포는 구문과 사용 맥락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구문 분포는 단순한 빈도의 차이가 아니라 원어민 화자가 실제 상호작용에서 어떤 표현을 어떤 조건에서

선택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제약 및 조정 표현의 선택은 문법적 기능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담화 속에서 어떤 기능을 얼마나 자주 수행해 왔는지에 밀접하게 관련된다. 동일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구문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모든 표현이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비중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구문은 의미만으로 정의할 수 없고 담화 환경, 상호작용의 목적,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함께 축적된 사용 경험 안에서 점차 고유한 사용 범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구문적 특화는 특정 표현이 특정 맥락과 기능에 반복적으로 결합되면서 실제 사용에서 비교적 안정된 선택 경향을 보이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제약 및 조정 표현이 담화와 화용의 조건 속에서 서로 다른 지위를 갖는 구문임을 보여준다.

Ⅲ. 연구 분석 자료 및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영어의 모든 제약 및 조정 표현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분석 대상은 행동 제한 및 조정이라는 공통된 기능 영역에 참여하면서도 형식과 직접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네 구문으로 제한하였다. 이를 위해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COCA는 현대 미국 영어의 실제 사용 자료를 다양한 장르에 걸쳐 제공하는 대규모 코퍼스로, 현대 영어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되어 왔다(Davies, 2008). 본 연구는 제약 및 조정의 표현이 실제 상호작용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COCA의 여러 하위 자료 가운데 구어자료(spoken texts)를 중심으로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네 가지 구문 중 ‘Don’t + V’와 ‘No + NP’는 비교적 직접적으로 행동이나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반면 ‘NP + please’와 ‘Would/Could you’는 요청의 형식을 통해 청자의 행동을 조정한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직접적인 금지에서 완화된 요청에 이르는 표현들이 실제 담화에서 어떠한 환경, 기능 및 관계와 결합하는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문들은 모두 청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기능과 관련되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서로 다른 담화 환경과 상호작용 조건 속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자료 수집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COCA Spoken에서 각 구문에 해당하는 실현 유형을 검색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Don’t + V’에서는 566개, ‘No + NP’에서는 14개, ‘NP + please’에서는 11개, ‘Would/Could you’에서는 41개의 서로 다른 유형이 확인되었다. 이후 각 유형의 COCA 출현 빈도를 산출하고, 이 빈도 값을 구문별 양적 분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형은 구문의 가변 슬롯을 채우는 어휘 항목이 서로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Don’t go’와 ‘Don’t worry’는 동사 슬롯을 채우는 항목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유형으로 처리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동일한 표현의 대소문자 차이는 하나의 유형으로 처리하여 빈도 값을 측정하였다. 이후 각 구문에서 50개의 용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담화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총 200개의 발화 자료가 분석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200개 용례는 구문 간 전체 빈도를 추정하기 위한 표본이 아니라, 각 구문의 실제 담화 환경과 화용적 특성을 동일한 표본 크기에서 비교하기 위한 맥락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자료는 두 가지 수준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 전체 빈도 자료는 각 구문이 실제 언어 사용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며 양적 분포의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무작위로 추출한 개별적 용례는 각 구문이 실제 상호작용에서 어떠한 담화 환경과 화용적 기능,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며 분포의 질적 수준을 확인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자료의 구성은 단순한 빈도의 비교를 넘어서 실제 사용 맥락에서 나타나는 구문 선택의 경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양적 분포 분석과 질적 분포 분석의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구문에서 확인된 서로 다른 실현 유형을 분석 단위로 설정하고, 각 유형의 COCA 출현 빈도를 비교하였다. 따라서 이 분석은 네 구문의 단순한 전체 토큰 수를 비교하기보다, 각 구문을 구성하는 개별 유형들이 코퍼스에서 어떠한 빈도 분포를 보이는지를 비교한다. 구문별 유형 빈도는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였으므로 각 유형의 출현 빈도를 자연로그 값으로 변환하였다. 로그 변환한 유형별 빈도를 종속변수로, 구문 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종속변수인 빈도 값을 자연로그(natural logarithm) 값으로 변환하였다. 빈도의 분포는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선형모형(general linear model)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자연로그 값으로 변환되면 이 값들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접한다. 따라서 일원분산분석과 같은 일반선형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 4.4.3을 통해 일원분산분석과 Bonferroni 사후검정(post hoc analysis)을 실시하였다(R Core Team, 2025). 이를 통해 제약 및 조정의 표현에 사용되는 주요 구문들이 실제 언어 사용에서 서로 다른 빈도 분포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 사용 맥락에서 나타나는 구문 선택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각 구문에서 50개씩 총 200개의 용례를 대상으로 질적 분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용례는 담화 환경(discourse environment), 화용적 기능(pragmatic function), 화자-청자 위계(hierarchy)의 세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담화 환경(D)은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배경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일상 대화 상황, 행동 통제 상황, 서비스 상호작용 상황, 공공 규제 상황의 네 범주로 분류하였다. 화용적 기능(F)은 발화가 실제로 수행되는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직접적 금지, 일반적 요청, 공손 요청, 제도적 규제의 네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화자-청자 위계(H)는 발화 참여자 간 사회적 관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상위 화자→하위 청자, 동등 관계, 하위 화자→상위 청자, 제도적 권위의 네 범주로 분류하였다.

각 분석 범주의 적용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네 구문의 대표적인 실제 용례와 해당 용례의 담화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용례는 개별 발화와 좌우 문맥과 확장 맥락을 함께 검토하여 발화가 이루어진 상황과 화자-청자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였다. 특히 화자-청자 위계(H)는 단순히 위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담화에서 확인되는 참여자의 사회적 역할과 발화 방향을 함께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표 1
네 구문의 대표 용례와 분석 범주 적용 사례

분석 항목	Don't + V	No + NP	NP + please	Would/ Could you
대표 용례	Don't rinse your mouth for fifteen minutes.	No cell phones.	One moment please.	Would you please stand?
담화 상황	치과 진료 후 일정 시간 입을 헹구지 않도록 지시	특정 상황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규칙 제시	전화 응대 중 상대에게 잠시 기다리도록 요청	법정에서 청자에게 일어서도록 요청
화자→청자	의료진 → 환자	규칙 제시자 → 적용 대상	서비스 담당자 → 통화 상대	판사 → 법정 참여자
담화환경(D)	행동 통제	공공 규제	서비스 상호작용	공공 규제
화용적 기능(F)	직접적 금지	제도적 규제	일반 요청	공손 요청
화자-청자 위계(H)	상위→하위	제도적 권위	대등	제도적 권위

이러한 코딩을 바탕으로 각 구문이 담화 환경(D), 화용적 기능(F), 화자-청자 위계(H)에 따라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의미 영역을 공유하는 여러 구문이 실제 구어 담화에서 어떠한 사용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해 구문과 담화 환경, 구문과 화용적 기능, 구문과 화자-청자 위계의 관련성을 각각 분석하였다.

Ⅳ. 코퍼스 기반 구문 분포 분석

1. 제약 및 조정 표현 구문의 양적 분포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제약 및 조정 표현과 관련된 네 가지 구문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빈도 값을 자연로그 값으로 변환한 후, 일원분산분석과 Bonferroni 사후검정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네 가지 구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3, 628) = 8.82, p < .001$). 네 가지 유형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후검정 결과, 'Don't + V' 구문과 'Would/Could you' 구문 간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Don't + V' 구문과 'NP + please' 구문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거의(marginally) 유의미하였다($p = .078$). 각 구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구문별 실현 유형의 로그 변환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

Don't + V (n = 566)	No + NP (n = 14)	NP + please (n = 11)	Would/Could you (n = 41)
3.99(1.52)	3.14(.73)	2.88(.56)	3.01(.58)

표 2에서의 n은 COCA Spoken에서 중복을 제거한 후 확인된 서로 다른 실현 유형의 수를 나타낸다.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 유형의 출현 빈도를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산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네 가지 형태(Don't + V, No + NP, NP + please, Would/Could you)의 구문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서는 담화 환경과 상호작용 조건 속에서 선호되는 구문이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Croft, 2001; Traugott & Trousdale, 2013).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평균 로그 빈도는 'Don't + V'가 가장 높았으며, 'No + NP', 'Would/Could you', 'NP + please'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Don't + V'와 'Would/Could you' 사이에서만 확인되었으며, 'Don't + V'와 'NP + please'의 차이는 유의수준 .05에 도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 분석 결과는 구문별 실현 유형의 빈도 분포가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지만, 모든 구문 쌍이 서로 유의하게 구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담화 환경(D)에 따른 구문 선택의 분포와 질적 특성

본 절에서는 네 가지 구문(Don't + V, No + NP, NP + please, Would/Could you)이 담화 환경(D)에 따라 어떠한 선택 양상을 보이는지를 코퍼스 자료에 근거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제약 및 조정 표현은 직접적인 금지 명령뿐 아니라, 청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조정, 유도하는 요청 표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행동 통제 범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의미 영역을 공유하는 여러 구문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담화 환경과 발화의 기능, 그리고 화자-청자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 경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본 분석은 각 구문이 어떠한 상황에서 더 자주 선택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구문 선택이 고정된 문법 규칙의 적용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맥락과 기능적

요구,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 사용 양상임을 밝히고자 한다.

1) 담화 환경(D)에 따른 구문 선택

표 3, 4를 보면, 네 가지 구문은 담화 환경에 따라 분포가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빈도 값에 기반한 구문과 담화 환경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카이스퀘어(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스퀘어 분석 결과, 구문 유형과 담화 환경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었다($\chi^2(9)=25.414, p=.003$). 각 구문은 동일한 수의 용례(50개)를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수치 차이를 통해 사용 경향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

표 3
제약 및 조정 표현의 담화 환경 분포

구문	일상 대화	행동 통제	서비스 상호작용	공공 규제	합계
Don't V	24	18	4	4	50
(%)	(48%)	(36%)	(8%)	(8%)	(100%)
No + NP	8	17	12	13	50
(%)	(16%)	(34%)	(24%)	(26%)	(100%)
NP + please	11	24	10	5	50
(%)	(22%)	(48%)	(20%)	(10%)	(100%)
Would/Could you	14	19	13	4	50
(%)	(28%)	(38%)	(26%)	(8%)	(100%)

표 4
구문별 담화 환경 핵심 집중 영역

구문	가장 높은 환경	토큰 수	특징
Don't + V	일상 대화	24	상호작용 중심
No + NP	행동 통제	17	분산형
NP + please	행동 통제	24	현장 통제
Would/Could you	행동 통제	19	협조적 조정

먼저 'Don't + V'는 일상 대화에서 24개(48%), 행동 통제에서 18개(36%)로 나타나며 두 환경에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 서비스 상호작용과 공공 규제는 각각 4개(8%)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 이 구문은 규칙을 설명하는 상황보다 대화 속에서 상대의 행동을 바로 멈추게 하거나 바꾸려는 상황에서 더 자주 쓰인다. 이러한 분포는 이 구문이 특정 대상을 직접 향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규칙 안내 상황과는 잘 맞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No + NP'는 네 환경에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다. 일상 대화 8개(16%), 행동 통제 17개(34%), 서비스 상호작용 12개(24%), 공공 규제 13개(26%)로 확인된다. 특히 서비스와 공공 규제에서 절반 정도(25개, 50%) 나타난다. 이 구문은 개인 간 대화보다는 조건이나 기준을 알리는 상황에서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

다. 이는 동작을 직접 지시하기보다 허용 여부를 간단히 제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이유로 해석된다.

‘NP + please’는 행동 통제에서 24개(48%)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일상 대화(11개, 22%)와 서비스 상호작용(10개, 20%)에서도 일정한 수가 확인된다. 공공 규제는 5개(10%)로 상대적으로 적다. 이 구문은 설명보다는 현장에서 행동을 안내하거나 조정하는 상황에서 자주 쓰인다. 이러한 경향은 요구의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표현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으므로 상대의 즉각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Would/Could you’는 행동 통제(19개, 38%), 일상 대화(14개, 28%), 서비스 상호작용(13개, 26%)에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며, 공공 규제에서는 4개(8%)로 적게 나타난다. 세 환경을 합하면 46개(9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구문은 규칙을 알리는 상황보다는 상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상황에서 더 자주 쓰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질문 형식을 통해 상대의 선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규칙 제시보다는 상호작용 상황에 더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네 구문은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사용되는 환경은 분명하게 나뉜다. ‘Don’t + V’는 일상 대화와 행동 통제에, ‘No + NP’는 규칙이나 조건을 알리는 상황에, ‘NP + please’는 행동을 바로 조정하는 상황, 그리고 ‘Would/Could you’는 상호작용 속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에 더 많이 나타난다.

2) 화용 기능(F)에 따른 구문 선택

표 5와 6을 보면, 네 가지 구문은 직접적 금지, 일반 요청, 공손 요청, 제도적 규제의 네 범주에 고르게 퍼지지 않고 각기 다른 기능에 중점을 두며 나타난다. 카이스퀘어 분석 결과, 구문과 화용적 기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발견되었다($\chi^2(9) = 136.142, p < .001$).

표 5
제약 및 조정 표현의 화용적 기능 분포

구문	직접적 금지	일반 요청	공손 요청	제도적 규제	합계
Don’t + V	32	11	5	2	50
(%)	(64%)	(22%)	(10%)	(4%)	(100%)
No + NP	15	4	3	28	50
(%)	(30%)	(8%)	(6%)	(56%)	(100%)
NP + please	5	20	22	3	50
(%)	(10%)	(40%)	(44%)	(6%)	(100%)
Would/Could you	3	12	31	4	50
(%)	(6%)	(24%)	(62%)	(8%)	(100%)

표 6
구문별 화용 기능 핵심 집중 영역

구문	주요 기능	토큰 수	비율
Don't + V	직접적 금지	32	64%
No + NP	제도적 규제	28	56%
NP + please	공손 요청	22	44%
Would/Could you	공손 요청	31	62%

'Don't + V'는 직접적 금지에서 32개(64%)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일반 요청(11개, 22%) 및 공손 요청(5개, 10%)은 그보다 훨씬 적고 제도적 규제는 2개(4%)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이 구문은 발화 시점에 상대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멈추게 하거나 차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며 네 구문 중 통제의 강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No + NP'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제도적 규제에서 28개(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직접적 금지(15개, 30%)가 그 뒤를 따른다. 반면, 일반 요청(4개, 8%)과 공손 요청(3개, 6%)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특정 행동을 즉각적으로 막기보다는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기준이나 조건의 형태로 제시하는 데 더 자주 쓰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NP + please'는 공손 요청(22개, 44%)과 일반 요청(20개, 40%)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 직접적 금지(5개, 10%)와 제도적 규제(3개, 6%)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 구문은 요구의 내용을 분명히 드러내면서도 표현의 강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요청의 직접성은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특징 때문에 두 요청 범주 사이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Would/Could you'는 공손 요청에서 31개(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일반 요청에서도 12개(24%)가 확인된다. 반면 직접적 금지(3개, 6%)와 제도적 규제(4개, 8%)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행동을 바로 제한하기보다는 상대의 협조를 전제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황에서 주로 선택된다.

정리하면, 네 구문은 모두 행동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데 쓰이지만, 그 방식은 서로 달랐다. 특히 구문과 화용 기능의 관련성은 구문과 담화 환경의 관련성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구문 선택이 발화가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환경보다 발화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능과 더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3) 화자-청자 위계(H)에 따른 구문 선택

표 7과 8을 보면, 네 가지 구문은 화자-청자 관계 유형에 따라 분포가 뚜렷하게 갈린다. 카이스퀘어 분석 결과, 구문과 화자-청자 관계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제시되었다($\chi^2(9)= 71.529$, $p < .001$). 용례(50개)를 기준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수치 차이는 곧 관계 유형과의 결합 정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표 7
제약 및 조정 표현의 화자-청자 위계 분포

구문	상위→하위	동등 관계	하위→상위	제도적 권위	합계
Don't + V	13	24	5	8	50
(%)	(26%)	(48%)	(10%)	(16%)	(100%)
No + NP	14	6	4	26	50
(%)	(28%)	(12%)	(8%)	(52%)	(100%)
NP + please	10	12	20	8	50
(%)	(20%)	(24%)	(40%)	(16%)	(100%)
Would/Could you	4	11	29	6	50
(%)	(8%)	(22%)	(58%)	(12%)	(100%)

표 8
구문별 화자-청자 관계 유형 핵심 집중 영역

구문	주요 관계	토큰 수	비율
Don't + V	동등 관계	24	48%
No + NP	제도적 권위	26	52%
NP + please	하위→상위	20	40%
Would/Could you	하위→상위	29	58%

먼저 'Don't + V'는 동등 관계에서 24개(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상위→하위 관계에서도 13개(26%)가 확인되었다. 반면 하위→상위(5개, 10%)와 제도적 권위(8개, 16%)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이 분포는 이 구문이 특정 위계에 종속된 표현이 아닌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형태임을 보여준다. 즉, 발화의 방향보다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 조정이 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No + NP'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제도적 권위에서 26개(52%)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이 범주에 집중된다. 상위→하위에서도 14개(28%)가 나타나지만, 동등 관계(6개, 12%)와 하위→상위(4개, 8%)는 제한적이다. 이 구문은 화자 개인의 직접적 지시보다는 규칙이나 조건을 표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에 적합하다. 분포 결과는 규범 중심적인 환경에서 해당 구문이 반복적으로 활용됨을 시사한다.

'NP + please'는 하위→상위 관계에서 20개(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면서 동등 관계(12개, 24%)와 상위→하위(10개, 20%)에도 고르게 퍼져 있다. 제도적 권위는 8개(16%)로 비교적 낮다. 이 구문은 상대에게 협조를 구하는 맥락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지만 특정 위계 방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직접적인 요구를 유지하면서도 표현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에서 비교적 유연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Would/Could you'의 표현은 하위→상위에서 29개(5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다른 관계 유형과 비교해 봤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동등 관계(11개, 22%), 제도적 권위(6개, 12%), 상위→하위(4개, 8%)순으로 분포한다. 이 구문은 상대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상황에서 주로 선택되며, 특히 발화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향할 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같은 요청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관계를 드러내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구문은 그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요약하자면, 네 구문은 행동 통제라는 공통 목적에도 불구하고 관계 유형에 따라 분화된 활용 양상을 보인다. ‘Don’t + V’는 동등 관계에서, ‘No + NP’는 제도적 권위 하에서, ‘NP + please’와 ‘Would/Could you’는 하위→상위 관계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발화가 이루어지는 관계 구조가 표현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을 시사한다.

4) 구문 선택의 핵심 패턴 요약

표 9는 담화 환경(D), 화용 기능(F), 화자–청자 관계(H)라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합하여 각 구문의 분포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앞선 개별 분석과는 달리, 이 표에서는 세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맥락에서 구문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 표는 세 조건의 결합 효과를 입증하는 것 보다는 각 구문이 개별 분석 차원에서 어떠한 범주와 상대적으로 강하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표 9
구문 × 담화 환경(D) × 화용 기능(F) × 화자 위계(H)의 통합 분포

구문	주요 담화 환경 (D)	주요 화용 기능 (F)	주요 위계 (H)	핵심 특징
Don’t + V	일상 대화(24)[1], 행동 통제(18)	직접적 금지(32)	동등 관계(24)	즉각적 행동 조정
No + NP	행동 통제(17), 공공 규제(13),	제도적 규제(28)	제도적 권위(26)	규칙·조건 제시
NP + please	행동 통제(24)	공손 요청(22), 일반 요청(20)	하위→상위(20), 동등(12)	완화된 요구 혹은 현장 안내
Would/Could you	행동 통제(19), 일상(14)	공손 요청(31)	하위→상위(29)	간접적 협조 요청

구문별로 살펴보면, ‘Don’t + V’는 일상 대화 및 행동 통제 맥락에서, 동등 관계와 함께 결합될 때 직접적 금지 기능을 수행하는 용례가 두드러진다. ‘No + NP’는 공공 규제 및 서비스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며, 주로 제도적 권위에 기반하여 규칙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NP + please’는 행동 통제 상황 및 요청 기능 맥락에 나타나고 하위→상위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기록한다. ‘Would/Could you’는 공손 요청 기능 및 하위→상위 관계에서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구문의 50개 분석 용례 중 해당 범주에 포함된 토큰 수를 나타낸다.

목할 만하게 나타나며, 특히 상호작용 속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이처럼 각 구문은 담화 환경(D), 화용적 기능(F), 화자-청자 관계(H)의 각 분석 차원에서 서로 다른 분포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동일한 행동 제약 및 조정의 기능 영역에 속하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에서는 담화 상황, 발화 기능 및 참여자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영어의 제약 및 조정 표현을 구성하는 네 가지 구문이 실제 언어 사용에서 어떠한 분포를 보이며, 이러한 분포가 담화 환경(D), 화용적 기능(F), 화자–청자 위계(H)와 어떻게 결합되는지 코퍼스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COCA 구어 자료를 기반으로 각 구문에서 동일한 수의 용례를 추출하고 양적 분포와 질적 분포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구문 선택의 실제 사용 양상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행동의 제약, 조정과 관련된 기능 영역을 공유하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에서는 구문에 따라 서로 다른 분포가 나타났다. 구문 유형에 따라 사용 비율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일부 구문 사이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구문별 실현 유형의 로그 변환 빈도를 비교한 결과, 네 구문 사이에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 628) = 8.82$, $p < .001$). 평균 로그빈도는 ‘Don’t + V’에서 가장 높았으며, ‘No + NP’, ‘Would/Could you’, ‘NP + please’의 순으로 나타났다. Bonferroni 사후검정에서는 ‘Don’t + V’와 ‘Would/Could you’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p < .001$). 반면 ‘Don’t + V’와 ‘NP + please’의 차이는 유의수준 .05에 도달하지 않았다($p = .078$). 이러한 결과는 구문 유형에 따른 빈도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모든 구문 쌍에서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네 구문의 선택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빈도 분포뿐 아니라 각 구문이 결합하는 담화 환경, 화용적 기능 및 화자–청자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문 선택은 담화 환경, 수행 기능, 그리고 화자-청자 관계가 결합된 조건 속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Don’t + V’는 일상 대화와 행동 통제 상황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며, 상호작용 속에서 즉각적인 행동 조정이 필요한 상황과 주로 결합된다. 반면 ‘No + NP’는 공공 규제와 서비스 환경에 넓게 분포하며, 규칙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NP + please’는 행동 통제 상황에서, ‘Would/Could you’는 상호작용 기반 환경과 하위→상위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화용적 기능과 관계 구조를 함께 고려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Don’t + V’는 직접적 금지, ‘No + NP’는 제도적 규제,

‘NP + please’는 완화된 요구, ‘Would/Could you’는 공손 요청에 주로 함께 나타난다. 또한, ‘Don’t + V’는 동등 관계에서, ‘No + NP’는 제도적 권위에서, ‘NP + please’와 ‘Would/Could you’는 하위→상위 관계에서 더 자주 사용되었다. 이는 동일한 행동 통제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는 방식이 기능과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는 제약 및 조정 표현의 구문 선택이 단순한 문법적 대체 관계에 그치지 않고 담화 환경(D), 화용적 기능(F), 화자-청자의 관계(H) 구조가 결합된 조건 속에서 형성된 사용 기반의 분포임을 시사한다. 세 조건이 구문 선택과 맺는 관련성은 동일하지 않았다. 화용 기능과의 관련성이 가장 강했으며, 화자–청자 관계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담화 환경과의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러한 차이는 구문 선택이 단순히 담화 장면의 유형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발화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능과 참여자 간 관계에 더 민감하게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각 구문은 특정 조건과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비교적 안정된 선택 경향을 형성하며, 이러한 경향은 코퍼스 자료에서 확인되는 분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별 구문의 형식과 의미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실제 사용 맥락에서 나타나는 선택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구어 코퍼스를 기반으로 제약 및 조정 표현의 구문 선택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동일한 의미 영역에 속하는 여러 구문을 하나의 분석 틀 안에서 비교함으로써 구문 선택이 담화 조건과 관계 구조 속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구어 자료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자료를 포함하여 구문 선택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L2 학습자 자료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L1 화자의 분포와 L2 화자의 사용 간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여 구문 선택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Aijmer, K. (2013). *Understanding pragmatic markers*. Edinburgh University Press.

Austin, J.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University Press.

Barlow, M., & Kemmer, S. (Eds.). (2000). *Usage-based models of language*. CSLI Publications.

Biber, D., & Conrad, S. (2019). *Register, genre, and sty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own, P., & Levinson, S. C.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ybee, J. (2010). *Language, usage and cogn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roft, W. (2001). *Radical construction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Culpeper, J. (2011). *Impoliteness: Using language to cause off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vies, M. (2008). *The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COCA)*. https://www.english-corpora.org/coca/

Diessel, H. (2019). *The grammar network: How linguistic structure is shaped by language u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llis, N. C. (2002). Frequency effects in language processing.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4*(2), 143−188. https://doi.org/10.1017/S0272263102002024

Ellis, N. C. (2012). Formulaic language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2*, 17−44. https://doi.org/10.1017/S0267190512000025

Goffman, E. (1967). *Interaction ritual: essays on face-to-face behavior.* Anchor Books.

Goldberg, A. E. (2006). *Constructions at work: The nature of generalization i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Hoffmann, T. (2022). *Construction grammar: The structure of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9781139004213

Langacker, R. W. (2000). A usage-based model. In M. Barlow & S. Kemmer (Eds.), *Usage-based models of language* (pp. 1−63). CSLI Publications.

Leech, G. N. (2014). *The pragmatics of politeness*. Oxford University Press.

Levinson, S. C. (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R Core Team. (2025).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Version 4.4.3) [Computer software].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https://www.R-project.org/.

Schiffrin, D. (1994). *Approaches to discourse*. Blackwell.

Searle, J. R. (1969). *Speech a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Traugott, E. C., & Trousdale, G. (2013). *Constructionalization and constructional changes*. Oxford University Press.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이지혜 (연구원)
건국대학교 다언어다문화연구소
0502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Email: yjh2488@ konkuk.ac.kr

정혜녕 (연구원)
건국대학교 다언어다문화연구소
0502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Email: chn4050@konkuk.ac.kr

전문기 (교수)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0502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Email: mjeon1@konkuk.ac.kr

Received: July 9, 2026
Reviewed: September 3, 2026
Revised version received: September 21, 2026